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청년주일 :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청년예수의 정신이 깃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추석명절 : 오늘은 추석입니다. 오후 시간은 가족들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 점심식사는 없습니다.

가을소풍 : 10월 18일에 전교인 가을소풍이 있습니다.(문화부 주관) 장소는 춘천 유정마을(김유정역 일대)입니다. 9:30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용산역에서 직통전철(전세)을 타고 이동합니다.

신앙실천 : 보름달을 보며 난민들과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주 설교 본문

1부	욘 2:1-10 / 시 25	2부	고후 9:10-15
예배	히 1:1-4 / 막 10:2-16	예배	

오늘 식당 봉사 : (없음)

다음 주 식당봉사 : 김윤정 조병주 최은미 박시내 김명하 오형일 류준모

오늘설거지봉사 : (없음)

다음주설거지봉사 : 2남선교회

커피 판매 봉사 : 3남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수요성경연구	19:30	교육관
토요성경읽기	10:30	세미나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 후 제18주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 경배의 찬송 28. 복의 근원 강림하사 다 함께
-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날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을 밤하늘에 점점 환하고 둥글게 차오르는 달은 우리 마음의 어두움도 몰아내는 듯합니다. 생명의 빛 되신 주님, 이산의 아픔과 생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의 마음에 주님의 빛을 비취주십시오. 그들의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따스하고 부드러운 빛으로 감싸주십시오.

주님, 청년주일을 맞아 이 시대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전보다 먹고살기 좋아졌다고 하지만, 청년들은 좀처럼 희망을 품고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주님, 이 땅의 청년들이 하루하루 힘겹게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생활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렘31:13,14 인도자
- ♣ 교 독 문 97. 청년주일 다 함께
-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 대표기도 연준호 청년
- 응 답 송 찬양대
- 찬 양 88. 내 진정 사모하는 다 함께
- ♣ 성경봉독 딤펢전 6:11-16 박은애 청년
-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 찬 양 그 큰 일을 행하신 찬양대
- 말 씬 하나님의 사람이여 김기석 목사
- 거듭기도 다 함께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세기	이소애	강신철	이혜경	강인식	김정숙	김경혜	김명순	이교영	김성우
박유경	김순자	김애순	김영순	김용진	박효선	김윤수	박상호	김일량	이은옥
김재흥	최희영	김정훈	이진영	김준호	곽혜자	김중현	성귀옥	류건형	이주은
문홍일	박범희	박미영	박영희	박용진	김용원	박종철	임옥기	박창운	허정윤
백성래	변재민	이소혜	송동준	김진경	안세진	윤주원	최윤선	은종인	이경남
이영욱	장은주	이왕준	송상경	이유진	이윤석	박안수	이주경	이지훈	이치림
강상연	임고운	오재형	임승동	백혜숙	임 영	정경례	임형욱	장원호	박성희
장재영	김재영	정현선	유병선	정현숙	조경자	조순덕	최미자	최재욱	이수정
최종원	최진성	최영은	최 현	하정석	이명희	하현철	최성애	한상익	정영선
한완식	임정자	허명선	허성호	진은혜	허신열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무명

감사헌금

국영주 김영아 김예영 김재욱 진은정 김태정 김항자 박재영 이현정 송남필
 심화섭 정영란 은종인 이순정 이자애 이채령 조해민 임광호 전인섭 정예빈
 참빛찬양단 최금순 최미자 최소라 황경순 무명13

생일감사헌금

마유겸 이왕준 송상경 한준혜 무명1

녹색꿈헌금

무명5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백혜숙	박성희	조순덕	문금석
안디옥	신진식	최경미	심침	정복순
가나안	장영숙	신영신	박경선	심침
베다니	박홍재	박홍재	심침	박홍재
시온	권미숙	박미영	심침	허정윤
에베소	김금순	김금순	이순정	김금순
빌립보	곽권희	윤수진	윤미경	곽권희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노성희	오현정
나사렛	김경혜	홍춘숙	송양진	안현숙
다메섹	박혜경	박혜경	심상숙	김미화
두란노1	김재흥	오자영		
두란노2	김재흥	송형운		
두란노3	이범석	이진영		
두란노4	이범석	곽상준		
두란노5	신진식	이오복		

▣ 마음으로 읽는 글

상한 영혼을 위하여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밀둥 잘리어도 새순은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라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라

고통과 설움의 땅 훑훑 지나서
뿌리 깊은 별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 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 고정희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장로 : 한완식 윤석철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등	

찬양	574. 가슴마다 파도친다	다 함께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악하고 그릇된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키십시오. 마음을 다해 선한 것을 추구하며 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다 함께: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그릇된 것을 버리고 공동의 선을 위해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담임목사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없음	낮 집회 / 설교: 김기석 목사
	저녁성서연구 / 강의: 신진식전도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김기석 목사	이자애 선생 장기욱 집사

9월	영접위원	김인걸 송동준 강세기 이소애 서정순 한양미
	헌금위원	김정민 김금순

믿음으로 읽는 글

고정희의 ‘상한 영혼을 위하여’

어느 해 늦가을, 나는 서울 북한산 기슭에 있는 신학대학 캠퍼스로 고정희 시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시인과 나는 연배가 달랐지만 같은 신학도였지요. 산자락을 온통 울긋불긋 물들인 단풍은 캠퍼스까지 밀려 내려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아래 앉아 시와 인생과 하느님에 대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자, 시인은 멀리서 찾아온 아우를 빈손으로 보낼 수 없다며 자기가 깔고 앉았던 큰 손수건에 황금빛 은행잎을 주워 차곡차곡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손수건에 푹푹 싼 은행잎을 내 품에 한 아름 안겨주며 말했습니다.

“아마 이런 선물은 처음일걸?” 시인의 꽃얼굴에 장난기 어린 미소가 피었습니다. “정말 값진 선물이네요. 이걸 깔고 앉으면 황금방석에 앉는 거 맞죠?” “어쭙, 제법인데. 머잖아 시인이 되겠는걸!”

그가 건네준 선물을 품에 안고 기숙사로 돌아오면서 나는 정말 영혼의 부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심신이 궁핍하던 시절, 그 값없는 선물이 큰 위로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

서른 해 가까이 목사로 살아온 생을 돌이켜보면, 정성을 기울여 한 일의 많은 부분은 마음 상한 영혼들을 위로하는 일이었습니다. 결님들이 당하는 고통과 슬픔의 공명기共鳴器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았지요. 지난봄에는, 교우 중 한 분이 참척慘慼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참척’이란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은 일을 말합니다. 나는 친구를 위로할 말을 찾지 못한 채 따님의 시신이 안치된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대학원을 막 졸업한, 장래가 촉망되는 공학도였는데 장기에 퍼진 암을 이기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의 죽음 앞에서 늙은 부모는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낼 뿐이었습니다. 명색이 목사인 나도 그저 눈물

만 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둘러 눈물을 닦아주는 것보다 눈물을 섞는 슬픔의 공명이 역설적으로 던고 일어설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럴 때 눈물은 마종기 시인이 섬세한 통찰로 묘사했듯 ‘영혼의 부동액’이 됩니다. 자비와 위로를 담고 있는 따뜻한 액체, 눈물. 우리의 안구 속에 은밀히 숨은 눈물샘은 혹시 ‘축복의 샘’이 아닐까요. 예수는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오’(마태5:4)라고 한 것일까요.

마음을 열어 주위를 둘러보면 함께 슬퍼하며 위로할 상한 영혼들이 가득합니다. 극빈의 고통, 실직의 불안, 전쟁의 공포, 환경 재앙, 영적 공황..... 스스로 극복하고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세상엔 더 많습니다. 물론, 때로는 강한 이들조차 넘어지고, 지혜로운 사람도 실족합니다. 신심이 두터운 사람도 절망의 벽 앞에서 희망의 끈을 탁 하고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생의 길 위에 슬한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으니까요. 세상 누구도 ‘나는 타인의 위로와 격려 따윈 필요치 않아!’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위로는 불완전합니다. 내 슬픔과 괴로움을 나눌 사람이 곁에 있어도 위로받지 못할 때가 있지 않던가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혼자 울부짖고 혼자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던가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홀로 자기 존재의 바탕인 하느님과 대면하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 갈망 끝에 하느님과의 웅숭깊은 대면이 이루어질 때 우리도 시인처럼 담담히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눈물도 영원한 비탄도 없다는 전언. 내게는 이 전언이 마치 하느님의 음성처럼 들립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까요. 이런 위로는 사람이 사람에게 베풀어줄 수 없습니다. 눈동자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만이 베풀어주시실 수 있는 것이지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하느님과의 내밀한 교감으로만 얻을 수 있는 이런 궁극의 위로야말로 곧 구원이 아닐까요.

- 고진하, 「시 읽어주는 예수」(비채) 중에서